

고린도후서 강의: 패자를 위한 복음

1강 고난을 이기는 위로 (고후 1:1~11)

*읽을 말씀(1:1~7)

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의 개인적 감정이 가장 깊이 배어있는 서신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서신이다.

고린도후서의 배경

1세기의 '고린도'

역사

- BC 146 로마군대에 의해 파괴됨. 이후 100여년 동안 버려졌다가
- BC 44 줄리어스 시저(Julius Caesar)에 의해 재건됨

바울 사도의 방문 당시

- AD 50 년 경에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.
- 당시 고린도는 8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졌고, 9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제국 내의 젊은 도시였다.
- 빠르게 성장한 고린도는 제국 내에서 알렉산드리아, 로마에 이은 세번째 주요 도시가 되고, 경제 기적을 이룸으로써 많은 도시의 시기의 대상이 됨.
- 스포츠와 유희문화가 발달하고, 여행과 성산업, 종교적 다원주의 그리고 물질주의가 편만했다.
- 고린도의 이런 점은 오늘날의 캘리포니아와 유사하다고 해서 레이 스테드만(Ray Stedman)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'캘리포니아 전서와 후서'라고 부르기도 함. 그러나 비단 이것은 캘리포니아와 유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도시의 경향과 유사함.

바울과 고린도교회의 관계

고린도 교회 설립과 고린도전서

- 바울은 그의 2차 전도여행 중,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(행 18:1~17).
-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왔을 때 거기서 고린도전서를 썼는데, 이것은 그가 고린도를 떠난지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.
- 고린도전서를 쓸 때,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하기 위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(고전 16:1~11).
- 그러나 그 사이에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본 것은 우상숭배와 음행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었다.

2차 방문—고통스러운 방문

- 그래서 바울은 계획과는 달리 고린도를 잠깐이라도 방문하여 교회의 징계문제를 다루려고 2차 방문을 하였다. 그러나 그 방문은 ‘고통스런 방문’이 되었다(고후 2:1). 그들은 사도의 권위 자체를 문제삼았고, 바울 사도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까지도 비난을 하였다.
- 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도전하였다.
 - 바울이 진짜라면 왜 그렇게 그의 삶에는 고난이 많은가?
 - 왜 그의 사역은 다른 ‘지극히 큰 사도(super-apostles)’들과 비교하여 활기가 없는가?
 - 왜 그의 설교는 와닿는게 없는가?
 - 왜 그는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가?
 - 왜 그는 다른 대부분의 설교자들처럼 사례를 받지 않는가?
 - 그가 모금한다는 것은 믿을만한 것인가?
 - 왜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추천장이 없는가?
-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에 대한 비난과 의심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받은 ‘다른 복음’(고후 11:4) 때문이었다.
- 바울 사도는 큰 상처를 받고 2차 방문에서 돌아왔다.

고린도중서(?)

- 돌아온 바울은 회개를 촉구하는 심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다(고후 2:4). 이 편지는 잃어버려졌다. 놀랍게도 고린도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였다.
-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바울과 그의 복음에게로 돌이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의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남아 있었다.

고린도후서

- 이제 바울은 세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기에 앞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다.
- 이 때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였다.
- 아마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정된다.
- 이런 배경들을 볼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가장 감정이 깊이 배어있는 편지임을 알게 된다.

안부(1,2절) 안부에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분명히 쓴다.

- 자신의 사도됨: “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”
 -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면 그의 사도직을 거부하고 그를 반대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임을 선언하는 것
- 고린도 사람들의 교회와 성도됨: “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”
 -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‘하나님의 교회’였다.
 - 고린도교회는 더러운 음행을 하고 그것을 용납하였지만 ‘성도들(the saints)’이었다.
 - 그들이 성도인 것은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거룩함(sanctification)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(고전 1:30).

-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‘만물의 찌꺼기’처럼 대우했지만(고전 4:13)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요, 성도라고 부른다.
- 이어서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축복함으로써 서신을 시작한다.

고린도후서의 주제: **약함은 강함의 원천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다.**

-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견지하는 주제: “**약함은 강함의 원천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**”
-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의 처음 이야기도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.

고난의 사람, 바울

-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들: ‘고난’, ‘환난’
- 바울은 왜 자신의 고난을 설명하고 싶어하는가? 고린도교회에서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참 사도라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.
-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, 이미 고난에 대한 예언을 받았었다.
 - (행 9:16) “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”

그리스도의 고난

(1:5)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

- ‘그리스도의 고난’—
 -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
 - 그리스도의 자리에 기꺼이 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
 - (행 9:16) “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”
 - 사도적 고난—사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주신 고난
 - (쥘리 맥도날드) “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셨습니다.”

너희의 고난(6,7절)

(1:6~7)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

- ‘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’(6)
- ‘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같이’(7)
- 그리스도의 고난 -- 사도적 고난 — 고린도 성도들의 고난

- 사도적 고난이 절대적이고 특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다르지만 사도와 그리스도를 묶어주는 것처럼, 사도의 고난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다르지만 사도와 고린도 성도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.
- **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**이라는 점은 동일하다.

아시아에서 당한 환난(8~10)

(1:8~10)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

- ‘아시아에서 당한 환난’(8)—사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고 힘들었던 고난
- ‘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’ 한 환난(8)
- ‘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’ 것으로 느끼게 했던 고난(9)
- 복음의 사도로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바울이(4:8~12; 11:23~33) 최고의 환난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건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,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견딜 모든 힘을 잃었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,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건이었다.

바울이 경험한 위로

- 자기 연민이 아니다.
- 사도가 말하는 위로는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다.
- 3~7절에 ‘위로’라는 단어는 10번 나온다.

위로와 보혜사 하나님(3,4,5절)

위로(παράκλησις) = 사람이 흑독한 시련을 겪을 때 그의 곁에 서서 그를 격려하는 것 = 보혜사(παράκλητος)

(1:3)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지요 자비의 아버지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지요

- 바울이 찬송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신과 모든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
- ‘위로의 하나님’ = ‘보혜사 하나님’이라는 뉘앙스
- 성부, 성자, 성령 하나님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.
- 이 위로는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행위
- 이 사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.

(1:4)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

- ‘우리를 위로하사’(현재시제)

- 하나님께서 돌발적으로나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, 틀림없이 우리를 위로하신다
- ‘모든 환난’
 - 특정 종류의 환난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‘모든 환난’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

위로의 목적(4,6절)

(1:4)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

- 다른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주심
 -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듯이(히 4:15), 바울이 경험한 모든 환난은 모든 환난당한 자들을 동정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.

(1:6)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

- ‘너희를 위한 환난, 너희를 위한 위로’
 -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교회의 몸의 원리(고전 12:26이하).
 - 성도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고난의 경험과 위로의 경험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.
 - 사도의 확신: 이 모든 경험은 자신이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,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쓰이게 될 것이다.

고난을 보는 성경의 관점

오해들

- “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인데,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.”
- “고난을 당할수록 그는 영적인 사람이다.”
 - 성경은 어디에서도 고난 자체를 예찬하거나 고난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는다.
- “고난은 죄 때문에 혹은 믿음의 결핍 때문에 온다.”
 - 이런 종류의 오해들을 바로잡는 것은 고린도후서를 쓰는 한 가지 목적이다.

성경이 가르치는 고난의 성격

- 고난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으며, 그리스도인의 미덕도 아니다. 고난은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한 페이지일 뿐이다.
-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허용하시는 것이다.

성도는 고난을 당한다(요 16:33; 벘전 3:14,17)

고난에 관한 성경의 일관된 진술들

(요 16:33)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

(벘전 3:14)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

(벘전 3:17)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

- ‘믿음’을 가지고 불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다.
- 그래서 신자가 이 불신 세상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없다.
-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‘뱀과 같이 지혜로와야’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.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지혜는 아니다. 그러나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세상에서 신자는 고난을 경험한다.
-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는 적극적 차원과 소극적 차원의 고난이 있다.

적극적 고난(딤후 1:8; 3:12; 마 5:10~12) — 복음을 위한 고난

(딤후 1:8)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

(딤후 3:12)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

(마 5:10~12)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

- 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’ 자, 적극적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성 삼위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주어진다.
-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일, ‘주의 이름을 위하여’ 받은 고난이 있는가?

소극적 고난(고후 12:7) — 육체의 가시

(고후 12:7)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

- 소극적 고난은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‘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한’ 고난이라고 할 수 없다.
- 질병, 경제적 실패, 자녀들의 문제, 심적 고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고난들.
- 바울 사도는 이것들을 ‘그리스도의 고난’(5)이라고 말하지 않는다.
- 소극적 고난보다 적극적 고난이 더 많기를 바라는가?

고난을 대하는 자세

적극적 고난이든, 소극적 고난이든 우리 인생에서 그런 고난을 어떤 자세로 맞아야 하는가?

고난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다(5,9절).

(1:5)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

- 고난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다.

-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게 하는 도구다. 고난이 넘치지만,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넘친다.
-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--허드슨 테일러, 윌리엄 캐리, 데이빗 브레이너드, 헨리 마틴, 짐 엘리엇, 아도니람 저드슨, 에이미 카마이클...

(막 8:34)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

- 이 말씀은 주님과 같이 ‘고난—죽음—부활’의 사이클(그리스도의 사이클)을 품고 살라는 말씀이다.
- 주님은 고난당하셨고, 죽으셨으며 다시 사셨다.

(1:9)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

- 바울 사도는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가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배웠다.
- 자기의 힘이 능력의 원천이 아니며, 자기 실력이 사역의 비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.
-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을 배웠다.
-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값비싼 교훈을 배운다.
- 고난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.

고난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다(4,6,11절)

(1:4)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

(1:6)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

- 개인적인 고난은 교회라는 온 몸의 모든 지체와 관련을 맺는다.
-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의 고난은 결코 그 지체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,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출발점이 된다.
- 형제의 고난에 대한 동정심의 결여는 곧 믿음의 결여다(고전 12).
-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고난과 위로는 온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된다.
- 그러므로 고난은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어야 한다.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어야 한다.

(1:11)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

- 많은 사람의 기도는 많은 사람의 감사를 낳게 될 것이다.
- 성도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고 그 연합을 깊이 경험한다.

고난 속에서의 확신(10절)

(1:10)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

- 바울이 고난 속에서 가지는 확신은 ‘건지신다’는 단어를 세 번 반복함으로써 강조된다.
 - ‘건지셨고’--과거의 경험
 - ‘건지시리라’--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.
 - ‘건지시기를.....바라노라’--궁극적 미래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
-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.

고난은 위로를, 위로는 감사를 가져온다(11절).

(1:11)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

- 고난은 위로를, 위로는 감사를 가져온다.
- 그러나 이 세상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,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대가도 지불할 생각이 없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에 적용될 위로는 없다!

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(3,4절).

(1:3)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

(1:4)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

-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로 견디게 하고, 이기게 하며, 온 교회를 위로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.
- 그리고 그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.

오늘의 적용

- 고난과 약함은 부끄러운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다.
- 성도의 고난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다.
- 고난은 그리스도와 고난 당하는 자, 그리고 온 교회를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하는 힘이다.